

# ‘미니 총선급’ 6·3 재보선, 민주 10곳 우세·국힘 추격

민주당, 지역구 13곳 수성 목표  
국민의힘, 최소 4곳 승리 노려  
부산북갑·평택을, ‘단일화’ 변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기존 지역구였던 13곳을 시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소 4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4곳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는 총 4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은 ▲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14일 경기 평택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뉴스1

산 북갑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0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 ▲울산 남갑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후보가 최근에 확정돼 여론조사가 아직 발표된 게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기존 자당 의원 지역구인 13곳(대구 달성군 제외한 나머지)을 당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에 더해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경기 하남갑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일화 여부가 중요해진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이다. 그리고 경기 하남갑도 여야 간 승자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힌다.

일단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일어난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나왔으며, 무소속으로 한동훈 후보가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가 출마했다.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하정우 후보(39%)가 한동훈 후보(29%)를 10%포인트(p) 차로 앞섰다. 박민식 후보는 21%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내에서 한 후보에게 밀렸다. 보수 진영 후보의 합산이 하 후보를 앞서지만,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평택을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

보가 각 정당에서 나온 상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24%)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내에 앞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0%다. 이곳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단일화에 선을 그어 있다. 이런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만일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남갑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7%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33%)를 14%p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지난 22대 총선때도 추 후보는 1100여 표 차로 이용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다. 추 후보는 하남갑 대부분 지역에서 밀렸지만 신도시가 있는 감일동에서 이기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신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부산 북갑, 보수 갈등에 단일화 ‘안갯속’

박민식, 단일화 가능성에 선 그어  
野 지도부 “표 위한 단일화 부정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부산 북갑 보궐선거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곳에 출마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선 데다 국민의힘은 필승 의지를 다지며 해당 지역에서 연달아 두 번 당선된 바 있던 박민식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나서면서,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단일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는 전날(16일) 부산 북구 만덕동 배양근린공원에서 열린 행사 후 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없다. 여러 번 당 지도부가 얘기하더라도 저의 뜻은 확고하다”며 “한동훈식 갈라치기 정치 또는 유아독존 정치로는 보수 재건은 고사하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며 날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부산 북갑 보궐선거다. 사진은 하정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뉴스1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단일화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통합의 길도, 승리의 길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경향을 살펴보면 한 후보가 박 후보를 어느 정도 앞서서 결과가 나왔다. 일단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초반에 박 후보에게 밀리던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등으로 올라섰다. 이는 한 후보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거전이 지속될수록 큰 정당 소속이자 지역 기반이 있는 박 후보가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계다가 한 후보와 박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양 후보의 지지층이 완벽히 결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자구도가 된다 면 한 후보의 지지층이 박 후보를 찍거나, 박 후보의 지지층이 한 후보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양자 대결이 될 경우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서예진 기자

## 7829명 후보 등록… 21일부터 선거운동

6·3 지선, 국회의원 재보선  
거리 유세·후보자 간 토론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 모두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인 전날인 내달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선관위가 지난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총 7829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각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는 총 14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간 토론회도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1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연다. 만일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 불참 사실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28일부터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잠잠기(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서예진 기자

## 정청래 테러 모의… 與, 신변 보호 요청

“신속한 수사 개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돼 전날(16일) 경찰에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며 “테러 모의로 인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가입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정 대표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한일 정상, 4개월 만에 안동서 재회

내일 국빈에 준하는 예우 제공

청와대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양국 정상 ‘셔틀 외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대구 공항에 도착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 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한다.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나라현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당초 예정된 ‘호텔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을 올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 바 있다.

이후 양 정장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을 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